

“안전한 일상·공정한 사회·튼튼한 경찰 되겠다”

●취임 100여일 박성주 광주지방경찰청장

‘시민 평은 위해 책임 다하는 광주경찰’ 지향 투명한 인사로 신뢰 쌓아 치안 역량 극대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주(사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취임 100여일을 맞은 27일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청장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광주경찰이 비전”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목표 3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둘째는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셋째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이다.

박 청장은 “내실 있는 순찰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정착시키겠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박탈감을 안겨주는 고질적 부패·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불법·무질서에 일관성 있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직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출범 1년이 돼 가는 행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각각 중요 범죄정보 수집 및 인 지수사 등과 가시적·문제해결적 순찰활동 등을 펼친 결과 112신고 건수 감소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인사체계의 개선을 위해선 “심사 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총경 및 경정 이하 순환인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골자는 ▲인사 검증 다원화 ▲업무 중심의 객관적 역량 평가 ▲승진심사위원 확대 등이다.



순환인사 체계 강화 방향으로 경찰서장 복직 횟수 제한(승진정 1회, 동일정 2회)과 동일관서 근무기간 축소(최대 3년-2년)를 제시했다. 박 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시작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쌓아 치안 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청장은 “시민에게 공감받는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위해선 주민·지역사회·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치안이 필수”라며 “자치경찰체 시행과 함께 시민이 치안 동반자에서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광주 시민이 광주경찰과 함께 해주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광주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목표는 ‘시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박 청장은 “광주의 치안이 실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라며 “이는 곧 광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에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청장은 “늘 한결같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주경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안재영 기자

나주시, 道 부패 방지 시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반부패까지 확산·청렴 인식 제고 등 호평

나주시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 시·군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는 올해 공직사회 청렴 인식 함양과 부패 방지를 위해 추진한 시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 부패 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지역사회



확산 노력 등 4개 분야 10개 과제 지표를 살펴서 최우수·우수·장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

한다. 나주시는 반부패까지 확산,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호평 받았다.

특히 윤병태 나주시장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서약(사진),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회의’, ‘청렴 라이브’, ‘청렴 골든벨’ 등 연중 시행하는 청렴 시책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나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 사전모니터링 강화, 공식기강 확립을 위한 전 직원 복무점검 이행실태 점검 등 부정·부패 근절 및 비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도 힘써왔다.

윤병태 시장은 “효율성 있는 청렴 시책 수립과 전 직원의 참여·실천에 힘입어 2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부패 시책 발굴과 청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삼일파라뷰장학재단, 올해 1억8천만원 기부 ‘눈길’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14기 졸업생들 발전기금 기탁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이사장 최갑렬·사진 오른쪽)이 올해 1억8천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삼일파라뷰장학재단에 따르면 올 한해 동성고와 광주여상에 5천만원, 정광중·고등학교에 3천만원, 전남대병원 발전기금 3천만원, 조선대 외국문학 장학금 2천만원 등 1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남대병원에는 현재까지 3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기부했으며, 기탁금은 의학 연구 및 연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인 최갑렬 삼일건설 회장은 2019년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해 지난 5년간 장학금과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35억원여원을 후원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윤리 경영’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갑렬 회장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꿈과 포부를 마음껏 펼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참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병진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7일 “전남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14기 졸업식과 함께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30주에 걸친 GTMBA 커리큘럼을 이수한 14기 졸업생 46명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으며, 김원만 14기 원우회장(유·새한플러스회장)이 GIST 총장상을 수상했다.

김원만 회장은 “GIST가 세계적인 이공계 교육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우들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GIST 동문으로서 학교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GTMBA는 체계적인 CEO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최고기술경영자과정을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580여명의 동문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광주 북구 용두2 노인봉사단 ‘이웃사랑 도시락 나눔’

광주 북구 용두2주거행복지원센터와 노인봉사단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후원으로 최근 단지 내 노인에서 ‘제4회 이웃사랑 도시락 나눔’ 행사를 가졌다.

노인봉사단 등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용두2단지 내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등 30여명에게 전하면서 안부를 살폈다.

김명대 용두2 노인회장은 “이웃사랑 도시락 나눔에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원에 준 LH 광주전남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용두2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입주민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영 기자



여주시체육회 ‘제2회 체육인 화합 한마당’ 성료

여주시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관에서 제2회 여주시체육인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체육인 화합 한마당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시민과 체육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 중이다.

올해에는 시민과 체육인 1천500여명이 전남체육관을 가득 메우며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배구, 단체줄넘기, 유희후프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은 물론, 전자현악 공연, 경품 추첨 이벤트 등도 마련돼 많은 이들이 호응했다.

명경식 여주시체육회장은 “체육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시민과 체육인이 소통하고 건강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김수정 광주선명학교 교사
디지털교육연구 ‘전국 1등급’ 수상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27일 “전날 열린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광주선명학교 김수정 교사가 전국 1등급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교원의 자발적 연구·학습을 통한 디지털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약 7개월간 대회를 준비한 김수정 광주선명학교 교사는 디지털 교수·학습분과에서 ‘미래의 문을 여는 GATE 프로젝트로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주도역량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한 전국 1등급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특수교사 중 전국 1등급 수상은 김 교사가 유일하다.

같은 분과에 참여한 강도흥·윤영재 동림미래과학고등학교 교사는 ‘AI시대 SMART(System Management+ART)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3등급을 수상했다.

김수정 교사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수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에듀테크 도구를 다루게 되는 학생들이 보며 뿌듯했다”며 “교사와 학생이 시행착오를 딛고 수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기 기자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저소득 청소년 후원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는 27일 “지난 25일 동명동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후원금은 오는 2025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청소년 5명(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생 통장으로 각 50만원씩 입금되고, 입학준비물품 구입에 사용된다.

최종진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진만 동명동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온정이 넘치는 동명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장흥경찰-K-WATER ‘안전망 강화’ 협약

장흥경찰서는 27일 “지난 25일 경찰서장원마루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실종자 조기 발견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박흥원 장흥경찰서장,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장, 양 기관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한 지역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흥원 서장은 “공동대응협의체와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결론
▲승승중(한국상수도협회 사무총장)·김복순 씨 아들 도현(광주 북구청 기획실), 주남식(전 금호타이어 과장)·이순희씨 딸 민영(광주 북구청 주거통합돌봄과장)=30일(토) 오후 6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